



배 병 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정책방향

우리 경제가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월 중 수출,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 및 생산지표 역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최근 국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실업자 수는 11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4.9%로 1%p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2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한 실정이다. 전체 취업자수는 12만명이 증가했으나 영세 자영업자(-7만명), 임시·일용직(2만6천명)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실업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봉쇄하고 가정을 해체한다. 또한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가 하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제다. 더욱이 고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여성·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실업은 사회안정·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고실업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고실업, 고용 없는 성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보건복지 분야다. 최근 5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성장률은 40.4%로 정보통신업 등 타 분야를 제치고 성장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지속적으

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15만6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더욱 늘여나게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건강산업이나 요양·간병 등 고령친화 일자리 역시 늘어나게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는 중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계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공적 서비스로서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나 고용 잠재력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료·간호·건강서비스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0년까지 28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2016년까지 의료·사회지원 분야에서만 총 40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에서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고용 없는 성장, 약화되는 제조업의 성장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평가하고, “유럽의 사회적 비전(social vision) 6대 아젠다”에 사회서비스 인력을 포함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잠재력에 대응해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유망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기존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수요가 높은 간병서비스, 돌봄서비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신규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민간 고용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경우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 자리를 확대하되, 아파트 택배사업 등 노인에게 적합한 민간분야 우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는 등 18만6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4천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 일자리 6만5천개 제공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다양화·고급화된 수요와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 부응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유망 보건의료서비스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건강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육성, 병원 플랜트 수출 활성화, 제약·의료기기·뷰티산업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경

제의 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찾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올 1월부터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 TF'도 별도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을 효율화해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

갈 것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내실화·선진화함으로써 실업 기구의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미래의 보건복지 정책은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일자리 친화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